



2026. 6. 26 (금)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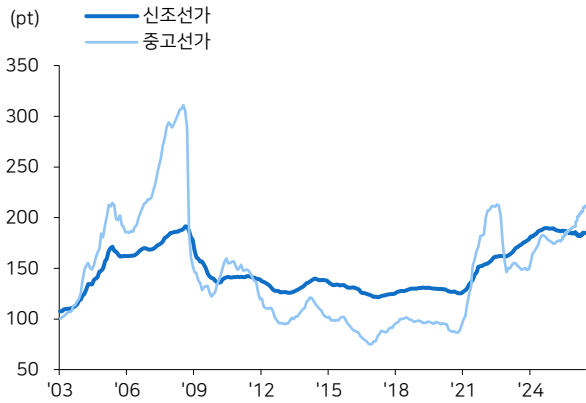
kiyeon.bae@meritz.co.kr

RA 김현비

hyunbee.kim@meritz.co.kr

»»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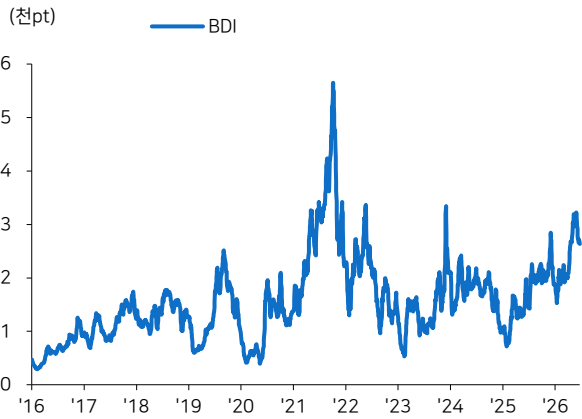
신조선가 184.9p (-0.1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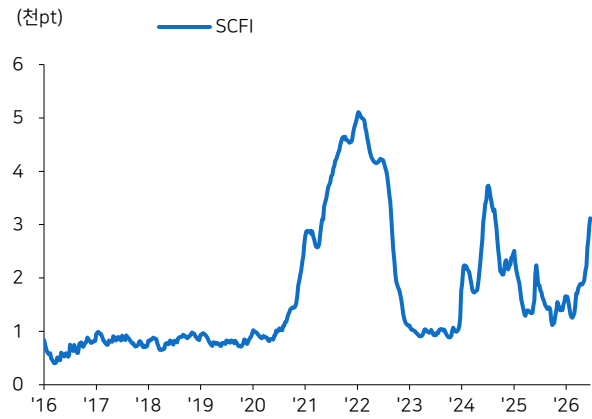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520.0달러 (-1.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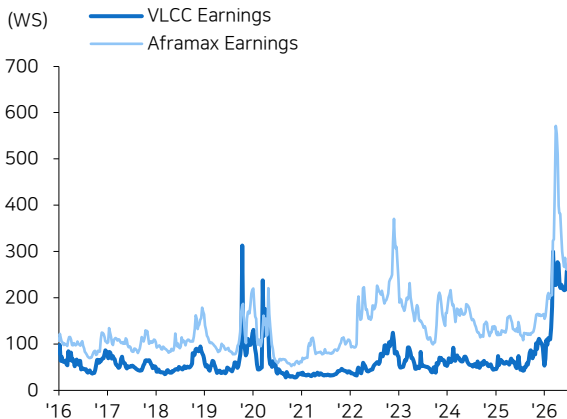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634.0p (-33.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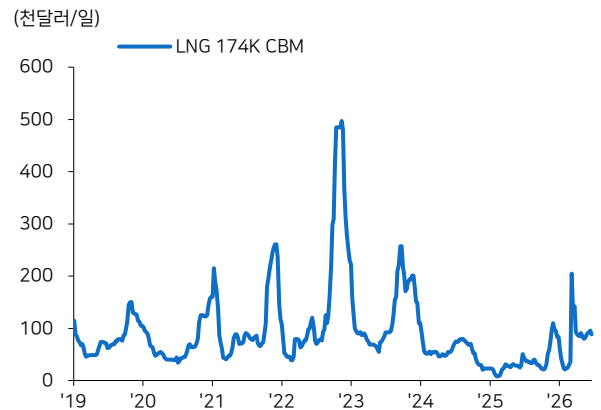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3,121.7(+136.5 WoW)



VLCC Spot Rate 257.9WS (+39.6p WoW)



LNG Spot 운임 88.5천달러 (-7.5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정책금융기관·조선사, 1,500억弗 '마스가' 맞을렀다 (세계일보) <https://zrr.kr/5HeLiU>

국내 정책금융기관과 조선 3사가 1,500억 달러 규모의 마스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한·미 조선협력투자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관련 투자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이라고 보도됨. 이번 협약에는 한미전략투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이 참여하여 조선 협력 투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상호 간 정보 교류 및 사업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고 전해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번 협약이 양국 조선 산업의 동반 성장을 이끄는 호혜적 투자라고 강조하며, 정책금융기관에 적기 자금 공급과 초기 투자 리스크 분담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고 알려짐.

HD 현대중공업, 우루과이 군함 시장 '출사표'...해양순찰함 2척 입찰 참여 (더구루) <https://zrr.kr/1UNR7i>

HD현대중공업이 스페인 조선소와의 계약 결렬로 해상 전력 공백이 발생한 우루과이 정부에 2,400톤급 해양순찰함(OPV) 2척 도입을 제안하며 약 2,000억 원 규모의 사업 수주에 나섰다라고 보도됨. HD현대중공업은 필리핀 해군 함정 사업을 통해 입증한 우수한 납기 경쟁력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전력 공백을 우려하는 우루과이를 위해 퇴역한 포항급 함정 공급 및 금융 지원, 해군과의 장기 파트너십 등을 패키지로 제안했다고 전해짐. 이번 사업을 두고 콜롬비아 및 프랑스 기업들과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HD현대중공업은 정부 차원의 수주 지원 활동과 현지 고위 관계자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알려짐.

HMM orders 10 newbuildings worth over \$1bn amid links to Vale haul (TradeWinds) <https://zrr.kr/Vk2rtb>

HMM이 건조 선대 경쟁력 강화와 자산 다변화를 위해 약 10억 달러 규모의 신조선 10척을 발주했다고 보도됨. 이번 발주 물량은 가스운반선 2척과 벌크선 8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HD현대삼호가 척당 약 1억 1,500만 달러 규모의 9만 cbm급 이중연료 VLGC 2척을 수주하여 2029년 상반기까지 인도할 예정이라고 전해짐. 벌크선 8척의 경우 예탄올이나 삼중연료를 사용하는 뉴캐슬 맥스급 선박으로 추정되며, 이는 Vale와의 장기 용선 계약을 염두에 둔 행보로 분석되고 있다고 알려짐.

Japanese shipbuilders won't resume LNG carrier construction before 2030 (TradeWinds) <https://zrr.kr/iZclol>

일본 조선업계가 에너지 안보를 위해 LNG 운반선 건조 시장 재진입을 계획하고 있으나, 기존 수주 물량으로 인해 건조 가능한 시점은 2030년 이후가 될 전망이다이라고 보도됨. 일본선박공업회 회장이자 이마바리 조선의 대표인 유키토 히가키는 일본의 LNG 운반선 건조 공급망이 사실상 소멸했기 때문에 시장 복귀를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고 전해짐. 이마바리 조선, 가와사키 중공업, 나무라 조선 등 3개 조선사가 건조 후보로 지명되었으나, 기술적 격차 극복을 위해 한국 기 자재 업체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고 알려짐.

Leading LNG producers urge EU rethink on methane rules (Upstream) <https://zrr.kr/L2PEw4>

미국, 카타르, 나이지리아, 알제리아 등 주요 LNG 수출국 에너지 장관들이 유럽연합의 메탄 배출 규제와 관련하여 기술적 기준의 불명확성과 법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규정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공동 서한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보도됨. 해당 국가들은 2027년부터 시행될 메탄 모니터링 규정이 현재 형태로는 이행이 불가능하며, 위반 시 기업 연간 글로벌 매출의 최대 20%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유럽으로의 LNG 수출에 큰 위험 요소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해짐. 이들은 모두가 수용 가능한 준수 방법론이 마련될 때까지 시행을 유예하고, 신규 계약에 대한 경과 조치 적용 및 전환기 내 페널티 면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알려짐.

한화오션, 나미비아 초대형 해상 원유 플랜트 수주 사활... 네덜란드·중 연합과 격돌 (조선비즈) <https://zrr.kr/yzALvM>

한화오션이 아프리카 나미비아 비너스 유전 개발에 투입될 부유식 원유 생산·저장·하역 설비인 FPSO 제작 사업 수주를 놓고 네덜란드 SBM Offshore와 최종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됨. 프랑스 TotalEnergies가 다음 달 최종투자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화오션은 단일 야드 일괄 건조를 통한 품질 및 납기 준수 능력을 강점으로 내세워 수주 원대 규모로 추산되는 이번 사업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전해짐. 이번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할 경우 한화오션은 적자 상태인 에너지플랜트 사업부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향후 나미비아 해역에서 이어질 대형 심해 플랜트 수주전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전망으로 알려짐.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될 수 없습니다.